

아이디어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로 처벌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저작권과 관련해 '아이디어(idea)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설명 때문인지 '아이디어'는 별다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대해서 이를 부정경쟁행위 중의 하나로 규정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관해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항은 제2조 제1호 (차)목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편의상 '아이디어 등 탈취')'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부정경쟁행위는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에 새롭게 신설됐다. 과거 아이디어가 이른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개정 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신설하게 됐다.

위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논의 및 협의 과정) 또는 거래과정(계약 체결 전후)에서 알게 된 또는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② 그 제공된 목적에 위반해 ③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한 경우야 하고, ④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위 요건들 중 '경제적 가치를 갖는 아이디어 정보인지', '아이디어 정보의 부정한 사용인지' 등은 경쟁관계의 존재 여부나 신뢰관계에 어긋나는 사용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아이디어 등 탈취의 부정경쟁행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아직 그 개별적 기준에 대한 법리가 충분히 정립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의 도입을 통해 타인의 아이디어 등 사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된 만큼 실무에서도 위 부분을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들 중에는 종래와 달리 위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 등 탈취)를 포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무자로서는 아이디어 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창피한 국민대표에 표 줄 수 있을까



기저 수첩 서 예 진 (정치경제부)

누군가에게 과거 일기장은 추억과 창피함을 동반할 것이다. 기자 또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스북은 나에게 원치 않는 친절함을 베풀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상단에 오늘자 과거 글을 띄워주는 친절함 말이다. 그래서 잠시 짬을 내 페이스북에 들어가 과거 글을 읽어보고 별 의미 없는 글이라면 그냥 지우거나 비공개로 돌리는 게 루틴이 됐다. 과거 글이 거의 '친구공개'인 것이 다 행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만인에게 창피하지는 않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온 이들 중에선 이런 다행이 작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어떤 후보는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막말'을 자신의 담벼락에 전시했고, 어떤 후보는 유튜브 세상에서 막말을 했다.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극언을 입에 담은 바람에, 인터넷 세상을 조금만 여행해도 온갖 막말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막말에 정치권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고민에 빠졌다.

야마 이런 고민일 것이다. 정치인이 되기 전 막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의 그와 현재의 그는 같은 사람일까. 사람은 정말 깊이 반성하고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반성이 유권자에게 와닿을 것이며, 이것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서로 경쟁하던 '막말 후보'들을 쳐내고

다. 정계 입문 전에 했던 발언으로 인해 현재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후보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계 입문 후에 했어도 현재의 자신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천 취소가 '과거의 막말로 현재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천 취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당에서는 후보로 낼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정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공천권자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려 나왔다는 점이다. '저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니, 정말 창피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가 후보로 나선다면, 유권자들이 납득하고 표를 줄 수 있을까. 지지층과 유권자는 '표 주는 재판관'이 아니다.

/sy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8일 (음 2월 9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자손이 방문하니 하루가 즐겁다. 48년생 우물가에서 송눈 찾기 말고 순서를 잘 지켜라. 60년생 편재扁財의 기운이니 큰돈이 들어오겠다. 72년생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니 놓치지 말고 능력 발휘. 84년생 오늘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
- 소** 37년생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된다. 49년생 상대의 단점을 말하기보다 칭찬을 하면 서로 유리. 61년생 꽃보다 아름다우니 자신감을 가지자. 73년생 조상님의 제사에 참석하면 좋을 듯. 85년생 자유로이 흐르는 물처럼 지혜가 솟는다.
- 호랑이** 38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50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해야 할. 62년생 망설임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준다. 74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 86년생 돈과는 소용없는 일만 벌인다.
- 토끼** 39년생 배우자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날. 51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 63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75년생 모든 일에 인내하면 결국 나에게 득이 발생한다. 87년생 먼 친척의 상복수.
- 말** 40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 52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으니 전진. 64년생 흘러가는 대로 유유히 하루를 보내자. 76년생 혼자 사색도 좋겠지만 책을 보고 소통을 해보라. 88년생 온고지신(溫故知新)을 게을리하지 않음.
- 뱀** 41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기 싫수가 없다. 53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65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길하다. 77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주변의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침. 89년생 노동의 힘을 소모하는 날.
- 닭** 42년생 한여름에 솜옷이 생각나니 건강 유의해야. 54년생 주식은 자기의 지식과 감각으로 투자하기도. 66년생 큰집 작은집이 아니라 적당한 규모의 집이 행운을 준다. 78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나쁜 상황은 아니다. 90년생 승진으로 감사.
- 개** 43년생 집착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자. 55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놓아야 한다. 67년생 침 뱀은 우물물 다시 찾는다. 79년생 말만 잘하는 사람을 믿기보다 말없이 실력 있는 사람을 따르자. 91년생 가진 자의 교만은 추락의 예고이니 겸손.
- 원숭이** 44년생 원칙을 잊으면 빛을 지게 되니. 56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정의 평화. 68년생 근거도 합리성도 없는 자신감은 위험요소. 80년생 시기 질투로 친구에게 이간질하게 하면 벌은 내가 받는다. 92년생 모든 이치에 생극제화(生剋制化)가 있다.
- 닭** 45년생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는 게 인생사인데. 57년생 풍수에서 배산임수는 명예 재물을 의미하는 것. 69년생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81년생 행정직에 적합하니 도전해도. 93년생 믿는 자에게 복이 온다 했으니.
- 돼지** 46년생 꿈에서 조상님을 보았다. 58년생 은퇴 설계를 미리 하여 노력의 결과가 생긴다. 70년생 대문이 작으면 복이 잘 나가지 못한다. 82년생 자좌관고(自坐官庫)로 여장부의 기상이니 해낸다. 94년생 돈에는 발이 달렸으니 소중히 여겨야만.
- 돼지** 47년생 다정도 병이니 배우자에게 간섭은 피하라. 59년생 오너를 비난하기보다 말을 경청해보시라. 71년생 조금 더 서둘러야 노후 걱정이 덜다. 83년생 차량 음주는 정말 하지 말아야. 95년생 남의 단점은 잘 보이나 내 단점은 안 보려 하니.



김상희의四季 결혼 인연

혹여 자신의 타고난 사주가 좋지 못할 때 배우자의 좋은 팔자만 한 것이 없다. 그래서 개운의 절대 호기는 바로 결혼이다. 배우자 운이 좋은 것도 자기 사주에 타고 태어나는 것이기도 해서 다행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항상 논란이 되듯이 결혼으로 인한 개운 역시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가 의문이다. 옛날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짚신도 짚고 있었다고 했던 각자 인연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가진 것 없이 부부가 되어도 각자의 복에 따라 살림도 번성하기도 하고 상대방 배우자와의 연이 잘 펼쳐지는 것을 기대할 만도 했다. 요즘은 결혼 인구가 줄어서인지 궁합이나 혼인 문제를 묻는 상담도 예전과 같지는 않다. 그래도 남녀 간의 연애나 부부간의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에 속한다.

한 번은 어떤 아가씨가 왔는데 애인이 총각인 줄 알고 만났는데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이다. 남자도 이제는 이실직고하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 아가씨는 남의 가정을 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남자는 어쩌다 한번 실수로 아이가 생겼고 그로 인해 결혼했다. 싸움도 잦고 너무 괴로운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람피우는 남자의 진부한 핑계이기는 한데 아가씨와 남자의 팔자를 살펴보니 서로 만나야 하는 오행의 구조이기는 했다. 남자는 사주에 을목乙木 일주로 자기를 생해 주는 오행인 수수 인성印星이 없는데 아가씨의 일간이 수성水性에 병화丙火가 떠 있다. 출수부용出水芙蓉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의 형상이다. 이는 여자의 내조로 인해 남자는 머지않아 상류사회에 진입도 가능하다. 그런데 아내 자리를 나타내는 토성이 연지年支와 시지時支에 있으니 두 여자 인연이 있다. 이런 것을 두고 결혼 인연으로 봐야 할까?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도파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9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9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